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20

해온이와 함께 한 서구역사알기

최혁 지음

이야기도움

정인서

사진도움

서구문화원

서구청



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한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해운이와 함께 한 서구역사알기

■ 역사 · 문화 · 행정의 중심지 서구

해운이는 지난 1년 동안 광주광역시 서구에 속해 있는 곳의 역사와 문화, 인물들의 역사적인 현장들을 찾아다녔다. 서구에는 치평동 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대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 구한말,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격변의 역사현장이 자리하고 있다.

서창나루와 사월산에는 진훤(견훤)과 패권을 다투던 왕건의 자취가, 여말선초(麗末鮮初), 서창 들녘(광산구 광주비행장 부지 포함)에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성을 쌓고 군사를 키우던 전라병영의 역사가 담겨 있다. 조선시대 서창 절골 마을은



▲ 사월산

대학자와 명신들을 배출한 곳이었다. 많은 인물들이 성리학의 깊이를 더하고 불의에 맞서 의로움과 기개를 떨쳤다.

임진 · 정유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해서는 박광옥, 김세근, 김극추 선생 등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나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켰다. 백마산은 의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고 금당산 등에는 김덕령 의병장의 전설이 스며있다. 어디 그뿐인가? 백마산에는 구한말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양진여 · 양상기 부자의병장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 유덕동 덕흥마을 덕산 전경(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모습)

유덕동 덕산 일대는 구한말 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 의로운 함성이 높았던 곳이다. 조선 조정 대신들의 부패를 청산하고 일제의 조선침략을 저지하려는 전라도 동학농민군들의 뜨거운 입김과 급박했던 발걸음이 스며있다. 6.25전쟁 과정에는 사월산과 금호동, 상무동 일대에 전쟁포로수용소가 있었다. 서구는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이 펼쳐지던 주 무대 중의 한 곳이었다.

해운이는 이런 역사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이런 비극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현대 사회에서 1980년이라는 분수령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겪어야만 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무대 병영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했다.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는 폐인이 돼서 상무대에서 나왔다. 군 시설이었던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된 뒤 지금의 상무대는 광주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광주의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

상무대는 새롭게 부도심으로 개발되었다. 상무지구에 들어서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를 박람회와 공연, 국제회의 장소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500개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은 전시장과 최대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0개의 중소회의실을 가진 컨벤션홀로 이뤄져있다.

해운이는 광주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서구는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또한 영산강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했다. 영산강변

들녘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농경문화와 축제가 전승되고 있다. 금당산, 개금산, 송학산 등은 주민들에게 청량하고 안온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숲 그늘이 울울한 완만한 산 둘레길이 많아 거주지로서 인기가 높다.

서구에 자리하고 있는 풍암호수, 운천호수, 전평호수 등은 도시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편하게 달래주는 곳이다.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서구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 서구문화원과 서구문화센터는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교양·인문학강좌를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호남 최대 시장인 양동시장은 장터의 애환과 서민들의 사연이 절절히 맺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구에는 또한 광주의 관문이 있다. 바로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이다. 광천종합버스터미널은 유스퀘어(U Square)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유스퀘어에 있는 문화관은 다목적의 가변형 공연장 동산아트홀과 금호갤러리, 전국 최초 디지털 IMAX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지역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2019년 착공돼 1·2단계 공사가 2023년과 2014년에 각각 완공되면 서구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진다. 상무역에 1·2호선을 연결하는 환승역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상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으로 연결되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구의 교통여건은 대폭 개선·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 운천호수

■ 서구의 역사적 인물

◇ 놀재(訥齋) 박상(朴祥 · 1474~1530)

서구 매월동 전평호수에서 회재로를 타고 나주방향으로 가다보면 백마교차로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좌회전을 해 1km 정도를 들어가면 절골마을이 있다. 조선조 중종 때의 문신(文臣)인 놀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학문이 깊었으며 기개가 곧고 높았다. 호남 사림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다.

박상 선생의 아버지 찬성(贊成) 박지흥(朴智興)은 아들 셋을 두었다. 장남이 하촌(荷村) 박정(朴禎), 둘째가 놀재 박상, 셋째가 육봉(六峯) 박우(朴祐)이다. 박우의 아들이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이다. 사암 박순은 선조 때 15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다. 박순은 서경덕의 문하에서 배우고 이황, 이이, 성혼, 기대승 등과 교우하며 조선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의로움과 충효를 중시하는 호남의 선비정신은 박상 선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해운이는 광주정신의 하나를 의로움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박상 선생에게서 뿌리를 찾아야 할 것



▲ 서창 길목에서본 절골마을 전경

이라고 생각했다. 선생은 조선 건국에 공이 컸거나 조정 권력을 쥐고 있었던 훈구파에 맞서 올바른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생전의 조광조는 박상선생에 대해 ‘강상의 법도를 세웠다’고 칭찬했다. 퇴계 이황 역시 ‘하늘이 내린 원우(元祐) 와 완인(完人: 행동과 인품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찬 했다.

박상이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자 했던 절의정신은 그의 조카 박순을 통해 조선성리학 정신으로 뿌리내렸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인사들은 박상과 박순으로 이어지는 학문계통을 통해 조선의 개혁을 시도했다. 이 개혁의 요람이 호남이었다. 박상선생이 실천한 절의정신은 호남정신으로 구현돼 나라를 구하는 충의정신으로 확대됐다.

◇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 · 1526~1592)

본관은 음성(陰城). 자는 경원(景瑗), 호는 회재(懷齋). 할아버지는 자회(子回)이다. 아버지는 사예 곤(鯤)이며, 어머니는 칠방 윤인손(尹仁孫)의 딸이다. 1568년(선조 1) 학행으로 천거돼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임명됐다. 1574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종부시주부가 됐다. 운봉현감 재임 시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를 세웠다.

1578년 전라도·충청도의 도사를 거쳐 1579년 예조정랑, 1580년 지평이 됐다. 그 뒤 성균관직강을 거쳐 영광군수·밀양부사에 올랐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 활동의 공로로 다시 관직에 올라 나주목사로 재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602년(선조 35) 나주 벽진촌(碧津村)에 세워진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됐다. 뒤에 벽진서원으로 고쳐졌다. 운봉(雲峰)의 용암서원(龍巖書院)에도 제향돼 있다.

남구에 있는 프라도호텔에서 국제 양궁장~풍암호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전평호수~고싸움놀이테마파크~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건너 서창방면 좌측도로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박광옥 선생을 기리는 회재로다. 나주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중의 하나다. 4차선 도로로 교통량이 많으며 길이 역시



▲ 전평호수

12.98km로 꽤 길다.

전평호수는 회재 선생이 그의 나이 43세 때인 1568년 매월동 회산(懷山:당시 광주 선도면 蓋山)에서 살면서 매월과 벽진마을 주민들의 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방죽이었다. 개산 남쪽의 물을 끌어들이어 만들었기에 개산방죽(介山防築)이라 이름 지어졌다.

주민들은 박광옥 선생은 모르지만 전평호수는 잘 안다. 이곳을 만들었던 분에 대한 존경으로 선생을 널리 알리려고 하고, 알려는 노력이 더 많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해운이는 마음먹었다.

◇삽봉(插峰) 김세근(金世斤 · 1550~1592)

김세근 선생은 27세 때인 선조 9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했다. 다음해인 28세 때에는 문과에 급제했다. 35세에는 종6품인 종부시 주부(宗簿寺 主簿)를 지냈다. 종부시 주부는 왕실의 계보를 찬록(撰錄)하고 왕족의 허물을 살피던 자리였다. 이때 김세근 선생은 율곡 이이와 함께 ‘양병론’(良兵論)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대신들은 태평시대에 군사를 키워야한다는 양병론은



▲ 학산사 경의당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론(邪論)이라며 묵살했다. 눈앞의 이익만 챙길 뿐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는 간신배들이 가득한 조정의 모습에 실망한 김세근 선생은 낙향을 결심하게 된다.

광주 세동마을로 거주를 옮긴 김세근은 백마산에 연병장(練兵場)을 마련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장정들과 함께 4년여 동안 무술 연마에 힘쓴다. 이 백마산에 군사조련장이 들어선 때는 임진왜란(1592년)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588년쯤이다. 김세근 의병장은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장정들을 불러들여 군사로 만들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세근

의병장은 6월18일 의병 300여명을 이끌고 출정했다.

충청도 영동(永同) 황간(黃澗)전투에 참가해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나 고경명의병장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1592년 7월 10일 와평들에서 순절했다. 학산사(鶴山祠)는 김세근 의병장의 충절을 기리는 사우(祠宇)다. 학산사는 팔학산 기슭에 자리한 불암(佛岩)마을에 있다. 행정주소로는 불암길 82-100(서창동)이다. 불암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홍살문(紅箭門)을 지나 300여m를 산 쪽으로 오르면 학산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극추(金克秋, 서창 절골마을), 황호(黃顥, 풍암동 윤리마을), 박대수(朴大壽, 서창 절골마을), 박희수(朴希壽, 서창 절골마을), 박지효(朴之孝, 서창 절골마을), 박광조(朴光祖) 등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서구 출신 인물들이다.

■ 서구팔경

이밖에도 서구에는 서구팔경이 있다. 해운이는 이번 역사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억을 떠올렸다. 서구청 누리집을 찾아 서구팔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 만귀정

◇ 만귀정(晚歸亭)

만귀정은 서구 세하동에 있는 수중정자다. 1400여 평의 연못 한 가운데 세워져 있다. 1671년 장창우(張昌雨)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며 만년을 보내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다.

원래의 건물은 없어졌고, 현재의 건물은 1934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만귀정 중건기는 1934년 고광선(高光善)이, 상량문은 같은 해 이병수(李炳壽)가, 중수기는 1945년에 후손인 묵암(默庵)

장안섭(張安燮)이 썼다.

◇ 금당산

풍암동 금당산의 이름 뜻은 ‘금당(金堂)을 모시는 산’이라는 것이다. 이름이 왜 금당산이라 지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풍암동을 품에 안고 있는 금당산은 높이가 304m에 불과하지만 계곡이 깊고 수맥이 깊어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금당산은 주월동에서 마재마을, 금호동 일대까지를 병풍처럼 끼안고 있는 산이다. 금당산에는 4.6km에 달하는 등산로와 4개 코스의 순환 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 풍암호수

당초는 농업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다. 1965년 신암·운리마을 일대 논에 물을 공급하던 저수지로 축조됐다. 1999년부터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에 따라 정자와 나무다리 등을 설치하고 호 주변으로 산책로를 만들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 풍암정에서 바라본 풍암호수

쉼터로 바뀌었다. 풍암호수가 있는 지역은 화정동에서 쌍촌동으로 이어지는 무등산 줄기가 있던 곳이라 오랜 송림들이 있어 운치가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와 걸으며 심신을 달래고 있는 광주의 대표적 명소다. 최근에 영산강 물을 끌어들여와 수질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서창들녘 낙조

서창 들녘에서는 광활하게 펼쳐수 있는 평야를 볼 수 있다. 넓은



▲ 서창낙조

땅과 땅을 기름지게 하는 영산강이 자리하고 있기에 광주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서창들녘에 서면 저절로 마음이 상쾌해지고 넓어진다. 산위에 올라서만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이곳에서 영암 월출산 모습까지 감상할 수 있다. 드넓은 평야에 붉은 빛이 잔잔히 깔리면 온 세상이 붉은 물에 젖은 듯 흥흥한 분위기로 변한다. 서창들녘의 낙조는 서구의 대단한 자랑거리다.

◇ 용두동 지석묘

용두동 지석묘(支石墓)는 서구 용두동에 있는 청동시대의 고인돌이다. 용두동 고인돌은 10기가 3줄로 배치돼 있는 형태다. 주위에 2~3개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평평한 덮개돌을 덮는, 바둑판식이 대부분이다.

광주에서는 모두 103개의 바둑판식 고인돌이 발견됐다. 그런데 용두동 고인돌 군에는 3개의 받침돌이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 1기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1km 인근의 송학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 양동시장

양동시장은 1980년대까지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전라도의 최대 도매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최근 국민들의 쇼핑행태가 인터넷을 비롯하여 백화점, 할인마트 구입으로 바뀜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청과 상인들이 힘을 합쳐 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노점상을 정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면서

양동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여전히 상인들의 따뜻한 정이 넘쳐나고 있는 시장이다. 양동시장은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인 양동(良洞)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 지금의 양동 일대는 과거에 '샘물'이라 불리던 동네였다. 큰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곳에 큰 시장이 들어서자 '돈을 쫓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로 양동이라 이름 지어졌다.

▼ 양동시장 전경



◇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서구 금호운천길 85-15(쌍촌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마애불상이다. 자연암벽에 불상을 양각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전각(殿閣) 형태다. 원효대사가 무등산 원효사에 머무르던 때 서쪽 하늘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제자 보광화상을 그곳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큰 바위에서 빛이 솟아나오고 있어서 그 곳에 불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으나 여러 가지 조각양식으로 비춰보아 고려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운천사이다.

◇ 5.18기념공원

5.18기념공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의미를 느끼고 생각하는 장소다. 80년 광주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상무대 이전과 함께 정부가 광주시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무신도심 개발지구내 10만평을 시민공원으로 무상 양여했다. 5.18의 명예회복과 값진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6만2천평 규모의 5.18기념공원이 조성되었으며 5.18기념공원 부지 내에는 기념문화센터, 현황조각 및 공원기반시설이 들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의 장으로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온이는 지난 1년 동안 서구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와 인물이야기를 주민들과 같이 나눴다. 생각해보면 서구의 역사가 품고 있는 아픔과 영광은 곧 광주가 겪은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것이다. 지난 역사 중에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훈을 얻어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된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와 인물이 방치되고, 망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온이는 지난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한 서구역사탐방 동행을 통해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장한 뜻을 길이 기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